

호텔 상대 매춘조직 적발

서울 59곳에 일본인 상대 윤락녀 알선

서울 시내 80개 호텔 가운데 75%에 해당하는 특급 및 일반 관광호텔 59군데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.

이와 함께 관광안내원이 매춘조직과 연락관계를 갖고 윤락녀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호텔 윤락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.

이같은 사실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롯데·코리야나·하얏트·힐튼 등 서울시내 유명호텔에 투숙한 일본인에게 윤락녀를 소개시켜준 뒤 화대를 가로챈 송복근(52·종로구 누하동)씨 등 8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.

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

4월 종로구 누하동 240 한옥을 임대, 전화 5대를 설치하고 구속된 서병일(39·무직·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화전3리)씨 등 2명을 하루 1만원씩의 연락책으로 고용해 유명호텔에 투숙한 일본인의 이름과 객실번호 등을 포주인 강영숙(53·여)씨에게 알려주면 강씨가 일본인과 통화한 뒤 윤락녀를 호텔로 보냈다는 것이다.

경찰은 이들로부터 시내 59개 호텔과 이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관광객의 이름, 객실번호 등이 적힌 비밀장부와 여행사 전화번호호부를 압수한 데 이어 이 장부가 윤락녀를 알선해 보낸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.